

# 광주대 태권도 전국대회 ‘금빛 발차기’

## 태권도원배 겨루기 부문서 고영훈 금메달 등은 2·동 2 획득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잇따라 메달을 획득했다. 광주대는 전북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제8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 겨루기 부문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영훈(2년)은 남자부 -87kg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남자부 -68kg 박성빈(2년)과 여자부 -57kg 김유정(3년)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부 -53kg 김유민(1년), 여자부 -67kg 조하은(3년)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강경도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국대회에서도 훌륭한 경기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파워태권도 대회를 비롯해 남은 모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대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은메달 3·동메달 2개를 획득했으며, 전국태권도대회에서는 단체와 개인전 금메달을 휩쓸며 남녀 종합우승을 달성하



‘제8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에 참가해 수상한 광주대학교 선수들과 강경도(맨 오른쪽) 감독. <광주대 제공>

는 등 대학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지난 4월에 열린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 여성태권도대회에서 종합 3위, 파워태권도 대회에서

실업팀과의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신흥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대 검도동아리 오금현 남자 2부 우승

### 회장기 대학검도선수권 박이수 남자동아리부 3위

전남대학교 검도동아리가 대학검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2부 우승과 남자동아리부 3위를 차지했다. 13일 전남대에 따르면 검도동아리 ‘전검회’ 소속 오금현(검도 5단, 중문학과 4)씨가 최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2회 대한검도회장기 대학검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2부 우승을 차지했다. 오금현씨는 고교 선수 출신들과 1부 승격을 준비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남자 2부대회에서 우승, 동아리 최강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오씨는 지난 춘계대학연합전 남자 동아리부에서도 개인전 우승을 거머쥔 바 있다. 박이수(검도 2단, 지질학과 4)씨는 남자동아리부(아마추어)에서 동아대, 서울대, 육군3사관학교 선수를 차례로 물리쳤으나, 준결승 연장전에서 아쉽게 제 3위에 머물렀다. 여자동아리부(아마추어) 개인전에서는 검도입문 1년차인 이강유(검도 1단, 국문학과 2)씨가 8



전남대 검도동아리 ‘전검회’ 선수들. <전남대 제공>

강까지 진출했다. 대한검도회, 한국대학검도연맹과 구미시검도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30개 대학 900여명

# ‘포스트 볼트’ 누구냐

##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100m 커리·제이컵스·폴먼 3파전 예상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은퇴한 뒤 세계육상 남자 단거리에서는 ‘포스트 볼트’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현재시간으로 오는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개막하는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선 ‘포스트 볼트’ 자리를 놓고 뜨거운 스피드 경쟁이 치러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 남자 100m 판세로 2022년 세계랭킹 1위 프레드 커리(27·미국), 도쿄올림픽 챔피언 러몬트 마르셀 제이컵스(28·이탈리아), 2019 도하 대회 우승자 크리스천 폴먼(26·미국)의 3파전으로 예상한다. 세계육상연맹이 ‘우승 후보 1순위’로 꼽은 스피린터는 커리다. 커리는 6월 25일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미국

대표 선발전 준결승에서 9초76로 결승선을 통과해 ‘2022년 세계 1위’ 기록을 세우더니, 결승에서는 9초77로 우승했다. 올해 커리를 제외하면 9초7대를 뚫 스피린터는 없다. ‘선수 기준’ 남자 100m 2022시즌 2위 기록은 트레이본 브롬멜(27·미국)이 작성한 9초81이다. 커리는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9초84의 개인 최고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는 속력을 더 높여 ‘선수 기준’ 역대 공동 6위인 9초76까지 기록을 단축했다. 커리가 2위를 한 도쿄올림픽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선 스피린터는 제이컵스였다. 9초80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제이컵스는 올해 3월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60m 결선에서도 6초41로 우승하며 메이저 대회 우승 행진을 이어갔다. 볼트는 은퇴 후 처음 열린 세계선수권 100m에서 우승한 선수는 폴먼이다. 폴먼은 2019년 도하 대회에서 9초79로 우승하며 볼트 이후 최고 스피린터 입지를 굳히는 듯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도핑 테스트 기피 혐의로 1년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 도쿄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폴먼의 개인 최고 기록은 9초76. 올 시즌 최고 기록은 9초87이다. 제이컵스 외에도 미국을 위협하는 스피린터들이 있다. 볼트가 부정 출발로 예선 탈락한 2011년 대구 세계선수권에서 100m 챔피언에 오른 요한 블레이크(33·자메이카)는 올해 6월 자메이카 대표 선발전에서 9초85로 우승하며 정상 탈환 의지를 드러냈다. 아프리카 기록(9초77)을 보유한 페르디난드 오만얌라(26·케냐), 20세 미만 세계 최고 기록 9초96을 작성한 레스타일 데보고(19·보츠와나)도 반란을 꿈꾼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농구대표 허훈(오른쪽)이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스타라 세나안에서 열린 2022 아시아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중국 선수를 따돌리고 레이업 슈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남자농구, 중국 잡았다

## 라견아·허훈 맹활약...아시아컵 조별리그 첫 경기 93-81 완파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첫 경기에서 ‘만리장성’ 중국을 잡았다. 주일승 감독이 이끄는 남자 농구대표팀은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스타라 세나안에서 열린 2022 아시아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중국에 93-81로 승리했다. 올해가 30회째인 아시아컵에서 1969년과 1997년 우승한 적 있는 한국은 4강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내걸고 나선 이번 대회를 기본 좋게 시작했다. 5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지난달 필리핀과의 평가전으로 데뷔한 주일승 감독은 부임 뒤 첫 국제대회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대회 역대 최다인 16회 우승을 보유, 한국의 가장 걸고려운 조별리그 상대로 꼽혔던 중국은 주축인 저우치 등 일부 선수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빠진 가운데 첫 경기 패배를 떠안았다. FIBA 랭킹 30위의 한국은 한 계단 위의 중국과 1쿼터를 19-19로 맞선 뒤 2쿼터에도 앞치락뒤치락했다. 허훈(상무)이 저돌적 돌파로 만든 3점 플레이에 힘입어 29-28로 전세를 뒤집은 뒤 허훈(KCC)의 레이업과 허훈의 3점포가 연이어 꽂혀 5분 50여 초를 남기고 34-28로 달아났다. 하지만 중국에 연이어 외곽포를 허용하며 다시 접전을 이어갔고, 전반을 43-45로 밀린 채 마쳤다. 후반 들어 수비 집중력을 끌어 올린 한국은 라견아(KCC)가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뽑아내며 3쿼터 3분 30여 초를 남기고 59-53으로 리드했고, 쿼터를 마무리 지을 땐 65-59로 앞섰다. 4쿼터 초반 강상재(DB)와 송교창(상무)의 연속 득점으로 71-65로 주도권을 놓지 않은 한국은 5분 12초 전엔 강상재의 3점포가 폭발하며 76-67을 만들었다. 3분 15초를 남기고는 최준용(SK)의 정확한 패스에 이은 라견아의 골 밑 마무리로 80-69, 두 자릿수 격차로 벌렸다. 84-77이던 종료 45.6초 전엔 허훈의 3점 플레이로 사실상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라견아가 양 팀 최대 25점에 14리바운드로 팽팽히 맞섰고, 허훈이 15점 6어시스트, 강상재가 13점을 보냈다. /연합뉴스

# ‘중국 귀화’ 쇼트트랙 임효준 중국 선수로 공식 등록

중국으로 귀화한 쇼트트랙 린샤오쥘(26·한국명 임효준)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22-2023 시즌 월드컵 시리즈를 통해 국제대회 복귀전을 치를 전망이다. ISU는 12일(한국시간) 홈페이지 선수 등록 시스템에 린샤오쥘을 중국 선수로 표기한 뒤 연맹 ID를 부여했다. 관철자람 등 중국 매체들은 “린샤오쥘이 중국 선수로 등록 절차를 마쳤다”며 “새 시즌엔 중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뛸 수 있다”고 전했다. 린샤오쥘은 최근 중국 대표팀 훈련에 참가하는 등 본격적으로 새 시즌 준비를 시작했다. 2022-2023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는 10월에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이어진다. 새 시즌 월드컵 시리즈는 총 6차례 진행된다. 내년 3월엔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인 세계선수권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린샤오쥘은 서울에서 한국 선수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도 있다. 린샤오쥘의 복귀는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에 상당한 부담 거리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린샤오쥘은 2019년 6월 인천 국제빙상경기연맹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 A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린샤오쥘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대로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귀화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종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탑건: 매버릭
2관	탑건: 매버릭
3관	탑건: 매버릭,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4관	엘비스
5관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6관	토르: 러브 앤 썬더
9관	토르: 러브 앤 썬더
7관 세네케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범죄도시 2,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8관 세네케	헤어질 결심, 범죄도시 2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신나는 국악여행**  
 일시 : 2022.07.28.(목)-30.(토)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4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